취득세 중과세 피하자…1억 미만 아파트에 수요 몰린다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0.18% 상승…51주 연속 상승세 이어져 광산구・북구 구축 단지 거래 활발…고가 신축 단지 상승세 주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축 위주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이 올랐던 것과 달리 오래되고 작은 평수의 1억원 미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 또 그 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가 이 어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올랐다. 전 주 0.19%보다 다소 상승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7월 첫째 주(6일) 이후 5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광산구가 0.3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북구 (0.18%), 동구(0.13%), 남구(0.12%), 서구

(0.09%) 등 순이었다.

광주의 집값은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저가 아파트 와 입지연건 및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가격 이 오르는 추세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투자 목적보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 래도 늘어남에 따라 실수요 위주 단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광산구의 경우 신창동 '신창부영2차'와 수 완동 '해솔마을 대방노블랜드2차', 월곡동 '한성2 차' 등 중저가 아파트나 기존 저평가 인식이 있었던 단지에서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신창부영2 차는 2005년, 해솔마을 대방노블랜드2차는 2005 년, 한성2차는 1991년 지어진 아파트로, 그동안 신

축 위주 거래가 활발했던 것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양상이다.

또 광산구와 북구 모두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 파트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했으며, 북구의 경우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수요 단지, 첨단2지구 신용동 강변 인근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 가격이 다소 낮은 아파트나, 1억원 미만 구축으로 재건축·재개 발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곳에 투자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

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만 부과돼 중 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장기적으로 투자해 재 건축이 이뤄질 경우 그만큼 가격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으로도 예측된다.

이밖에 동구는 정주여건이 양호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고, 남구는 주월동 신축 아파트 단지 위 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 왔던 중저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수요가 높아지 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양상이다"며 "이에 반해 신축 고가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를 누그 러지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업인 행복버스' 여수로 출발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여수농협은 24일 여수 여남고 체육관에서 고령 농업인 26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농업인 행복버스' 봉사를 했다. 이날 광주 수완센트럴병원이 검안과 돋보기 제작을 지원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52시간제 적용 지방기업에 외국인력 우선 배정

비상경제 중앙대책회의 5~49인 기업 지원방안 밝혀

정부가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 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 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 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정부 조사 결과 5~49인 기업

의 93%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 한 데 대해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대상기업의 95%인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그러면서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 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 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 원할 방침"이라며 이런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1대 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현장의

제도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광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권분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신청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가 맞춤형 상권・입 지분석을 해주며 경영정상화와 재기를 지원한다. 경영컨설팅의 분야는 ▲상권 및 입지분석 ▲유 통 및 물류 ▲고객서비스 ▲마케팅 ▲프랜차이즈 ▲회계·세무 ▲업종전환·사업타당성 분석 ▲점포

소상공인에 상권 무료 분석

광주신용보증재단

운영 ▲노무 등 11개 분야로 구성된다. 광주신보에서 보증을 이용하거나 보증 신청 중 인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1인 사업체는 직접 방 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해준다. 광주신보 6개 지점 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매수심리 위축" 하반기 전셋값 상승 할 듯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 가격 하락 전망, 역대 최저

올해 하반기(7~12월)에 10명 가운데 7명은 전 셋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

24일 부동산114가 지난 1~15일 전국 715명을 상대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6% (519명)가 하반기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 때문' (23.5%)과 '매 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증가'(23.5%), '임대 차 3법 시행 영향 (23.1%), '임대인의 월세 선호 로 전세 공급 부족(17.7%)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 '(7.5%) 등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4.2% (30명)에 그쳤다. 이는 부동산114가 2008년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62.1%(444명)는 하반기

에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는 "올해 상반기 상승 전망치

■2021년 하반기 매매·전세 가격 전망 응답 상승 보합 62.1 30.6



(70%)와 비교하면 수치가 다소 떨어졌다"면서도 "과거 조사에서 상승 전망 수치가 50%를 넘기 어 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 는 응답률은 7.3%(52명)에 불과했다. 이 수치 또 한 부동산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 은 수준이다.

납세자 권익 구제 첫 사례…과태료 부과 취소

광주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광주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를 취소했다고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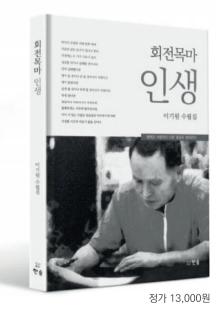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15일 열린 '2021년도 제1 회 광주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 라 수입 물품 도착 보고를 누락한 수입업체에 부과 했던 과태료 64만원을 취소했다.

광주본부세관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나온 첫 구제 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 생하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및 불편을 개선하고, 권 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세 관공무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위원 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 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 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광주본부세관은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전라도영광촌놈이기원이



서점판매

'包'不是一个。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밥벌레의 행목'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